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7. 29.(수) 10:01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1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43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 (2020-44-218)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진성철 이용자정책총괄과장직무대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을 <붙임 1>~<붙임 3>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하위고시에 반영하여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6월 9일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고,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폐지고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3조 등을 인용하는 문구 삭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하는 개인정보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어진 고시 폐지 2건입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망법으로 상향 입법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삭제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8월 5일 관보 게재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각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 위임근거가 없어진 2개 고시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 다음 달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담당했던 개인정보 관련 사안들이 이관되는 것은 아쉽지만 우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안건은 개인정보 업무 이관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안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달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업무 이관과 함께 위원회의 존치 업무에 안정적 운영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일부 우리 직원 분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분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기관에서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특례조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에서 기존 망법 제22조와 제23조 등을 인용하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이 이번 안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으로 상향 입법되거나 위임근거가 삭제된 고시 2개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큰 이견 없이 의결 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네 분 다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9년도 하반기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2019년도 하반기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17년도에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부가된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경과입니다. '17년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17년 12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시 외주제작 관련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18년 3월부터 '19년 6월까지 가이드라인 TF를 운영하였으며, '19년 7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19년 11월 시행하였습니다. '20년 4월 종편PP에 대한 재승인 조건으로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을 부가하였고,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방송사의 '19년도 11월과 12월 실적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 점검 개요입니다. 점검대상은 KBS, MBC, SBS 등 6개 방송사이며, '19년 11월~12월에 편성·계약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사별 대상 프로그램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점검내용은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및 외주제작사 제시 여부, 상생협약체 운영계획 수립 여부, 표준계약서 활용 등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반영 여부입니다. 점검사항 및 배점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되, 표준제작비 관련해서 20점, 상생협약체 관련 30점, 외주제작 계약서 관련 50점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방송사가 제출한 외주제작계약서,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상생협약체 운영계획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항목별로 점검하였습니다. 4쪽 <4>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결과입니다. <1>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 중 첫 번째, 선정기준 마련 여부입니다. 방송사업자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모든 방송사가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정기준 제시·활용 여부입니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제작비 협의 시 산정기준의 제시·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점검 결과 MBC, MBN 등 5개 방송사는 제작사와 협의 시 산정기준을 제시·활용하였으나, KBS는 총 14건 중 11건만 활용하였습니다. <2> 상생협약체 중 첫 번째 상생협약체 운영계획 수립 여부입니다.

대부분 방송사가 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범위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은 '19년 11월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20년도 운영계획을 위주로 수립한 점을 고려하여 배점을 설정하되, 지난 운영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차기 평가부터 점수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3>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외주제작 계약서 반영 중 표준계약서 활용입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11개 핵심조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대부분 방송사가 계약에 표준계약서 핵심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촬영시작 전 서면계약 체결 여부입니다. 확인결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의 경우 대부분 방영일 전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촬영시작 전 서면계약 비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저작권 및 수익배분 관련입니다. 저작권 귀속 등 권리합의서 작성 관련 확인 결과, 모든 사업자가 계약서에 권리합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서 '권리합의서 양식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6쪽 자료제공 의무 명시 여부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배분 시 근거자료 제공 여부인데, 모든 방송사가 계약서에 '수익배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거래 당사자가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협찬기준 명시입니다. 협찬유치 규모·수익 등 배분 명시 여부인데, 협찬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KBS, MBC, MBN 등이 있으며, 대부분 방송사·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점검 결과 종합입니다. 6개 방송사업자 모두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였으나, '촬영시작 전 서면계약 체결', '협찬기준 명시' 등 일부 점검항목은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사별 이행률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5> 향후 일정입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송사 통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2017년도 재허가·재승인 시 방통위가 제시하는 외주제작 거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부과받은 방송사업자들 중에서 외주프로그램 제작실적이 있는 6개 사업자에 대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이들 6개 사업자는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관련 권리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외주제작 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충실히 노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촬영시작 전 서면계약 체결과 또 협찬유치 규모·수익 배분 명시 등 일부 기준은 그 이행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한류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방송사들은 이번 점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무처에서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상생의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이어서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이것은 외주제작사와 방송사들 간 상생 문제가 걸려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점점 외주프로그램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행을 점검한 것을 보면 EBS는 93.7%로 굉장히 이행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종편인 MBN도 이행률이 75% 정도 되는데 제일 큰 방송인 KBS가 67.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의지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시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에게 좀 더 강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KBS가 이행률이 가장 낮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일단 조사기간이 작년도 11월부터 12월 2개월 동안 대상 프로그램인데 표본수가 전체적으로 작은 반면에 KBS가 제작한 프로그램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다 보니까 핵심조항 반영 여부 등에서 감점이 되어서 점수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EBS는 점수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건수가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개월간의 실적을 조사한 것이고 1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감안해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2017년 말 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기 방통위의 중점과제 중 하나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표준제작비 산정과 상생협의체 운영,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등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들의 반대가 심했었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한 지상파 9개사와 종편사업자 MBN 가운데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과 계약한 6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것이 이번 결과입니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은 방송사업자들이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이 있느냐 하는 여부를 가지고 판정을 했고, 또한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활용한 정도를 가지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 등 다수의 방송사는 생산요소별 단가기준을 마련했고, EBS는 프로그램 유형별 단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주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KBS 등 대부분의 방송사가 제작비 혹은 인건비, 출연료, 원고료 등 생산요소별로 단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일부 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EBS는

프로그램 유형별로 교양이나 다큐 혹은 정규냐, 특집이냐에 따라 전체적인 총액 규모를 제작사에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도 한편 제작사의 자율성을 존중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각각 사업자별 입장에 맞춰서 단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유불리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첫 번째 시행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일방적인 유불리를 논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작자 입장에서 어떤 쪽이 조금 더 나은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차후에는 비교를 해서 더 나은 방법을 개선하는 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생협약체 운영계획도 모든 방송사들이 다 세웠지만 실제 운영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결국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은 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투명한 거래질서, 그리고 상생의 외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대해 압도적 우위에 있던 것을 감안해서 상생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항목들을 현실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 끼어들지 않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상생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자와 사업자의 비즈니스 거래에 정부가 끼어 들어서 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또 계약서에 어떤 내용까지 넣으라고 기재내용까지 제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하루빨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이드라인 이행률을 점검한 것이고, 향후에 이행률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서도 과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원래 UHD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타 부처와 협의 문제도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조금 미루었습니다. 허 옥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상파 UHD 활성화 추진단장으로서 활동을 해 오셨고, 오늘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간 논의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기타 논의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과 관련해서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제63차 회의 때 올해 25% 이상인 UHD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을 20%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지상파 UHD 방송국의 허가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또 당초 올해와 내년으로 계획했던 시·군지역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을 연기하면서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 방안 일정에 따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방통위와 KISDI, ETRI 등 연구기관과 방송사 등과 함께 UHD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난 2015년에 수립되었던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과로는 세계 최초로 2017년 5월 수도권 본방송을 개시한 이후 12월에는 광역시와 평창 및 강릉지역까지 2단계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UHD 방송으로 중계하고 일부 경기종목은 UHD 국제신호로 해외송출을 했습니다. UHD 전국방송 주파수를 확보하고, UHD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개시했으며, UHD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그렇지만 UHD 지역방송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고 UHD 콘텐츠 제작 및 편성비율이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UHD TV 보급 및 직접수신 환경개선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UHD 기반 서비스 확대 및 사업모델 발굴도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 그리고 관련 기술과 산업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UHD 전국 방송망 구축, 콘텐츠 공급, 혁신서비스 제공, 시청자 접근성 향상 방안, 법·제도와 투자 재원 확충 방안 등 6개 과제에 관련해서 중점 논의를 했습니다. 중앙과 지역방송사 임원 및 기술책임자, 가전사와 통신사 관계자 등과도 만나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과 3차례 추경 등 그 후속대책, 한국판 뉴딜 작업 등으로 인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경과를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 이익과 방송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되 정책추진 여건을 감안해서 지상파 UHD 도입의 속도를 조정해서 추진하고, 초고화질 서비스를 포함한 UHD 방송표준인 ATSC 3.0 기술을 활용한 혁신서비스 도입 등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혁신기술의 도입 등 UHD 활성화 측면의 심도 있는 검토뿐만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 역할과 미디어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달에 조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향후 관련부처와의 본격 논의 등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4기 위원회가 이번 정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편익과 사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숙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 방송사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속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UHD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도 관심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회나 앞으로의 당부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저희가 UHD를 세계 최초로 시행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사실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 논의를 많이 해 왔지만 지금 이를 이행해야 할 방송사업자들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부처 간 의견조정도 시간이 걸려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허 욱 위원님이 말아서 굉장히 애를 써 주셨는데도 이 정도 결론에 이르러서 상임위원으로서도 대단히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새로 이끄시는 5기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과 김창룡 위원님 두 분께서 당부를 하셨으니까 각오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두 분께서 강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상파 UHD 문제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5기에서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떠나시는 두 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존경하는 표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허 욱 위원님이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깊은 식견, 능력으로 한국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의 정책 수행에도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일을 떠나시더라도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존경하는 안형환 상임위원님께서 이렇게 다짐을 해 주셔서 저는 든든합니다.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부처 간 협의도 잘 안 되는 UHD 정책과 관련해서는 허 욱 위원님께서 단장으로서 큰 노력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5기에서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 안 위원님의 저런 각오와 다짐이 저는 빛을 보리라 하고, 저도 서포트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허 욱 위원님,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4기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로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당부가 있었습시다만 남은 저희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또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옥 위원님께서 추진단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7월에 마무리를 했으면 했는데, 단순히 UHD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미래 정책 전반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좀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발표를 유예한다고 생각합니다. 5기가 출범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성공적인 UHD 활성화 정책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허 옥 위원님께 당부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고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UHD 관련해서 두 분이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7월 말일자로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간 어느 위원님들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고, 활동 또한 활발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형환 위원님이나 김창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셔도 우리 위원회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우군으로 영원히 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들도 있고 두 분 마지막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표철수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먼저 그동안 합의제 정신에 따라 합리적이고 역동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한상혁 위원장님과 허 옥 위원님, 김창룡 위원님, 안형환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회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최성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언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땅히 관장해야 할 업무가 타 부처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미디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타개하지 못한 점입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UHD 정책이라든지 방송 광고 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주요 현안들, 그리고 앞으로 다루어질 여러 정책들이 한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5기 위원님들의 지혜로 차근차근 정리가 되고 또 괄목할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말씀 주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대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감사합니다. 허 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4기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한상혁 위원장님과 표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창룡 상임위원님, 안형환 상임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사무처장님과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역할이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이어달리기, 즉 계주선수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4기 위원으로서 제가 맡은 구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5기 위원님들께 baton을 넘깁니다. 계주는 선수들 간의 협력과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위원간 정책목표의 공유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21대 국회 개원과 커다란 선거도 예정되어 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5기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도 밖에 가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표철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 그리고 방송평가위원장, 지상파방송재허가심사위원장 등 어려운 역할을 맡아오셨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셨다고 저 뿐만 아니라 방통위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허 욱 위원님 역시 전반기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장, 미디어다양성위원장, 지상파 UHD 활성화 추진단장,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책TF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두 분의 열정과 헌신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앞으로도 두 분이 당부 하신 말씀들, 그리고 활동을 기억해서 5기 위원회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방송통신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해서 별도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도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7분 폐회 】